

광주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신축 규제 나섰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오피스텔 용적률 하향 국제회의 전시장 30m 도로 확보엔 일반주거지역도 가능

광주시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무분별한 신축을 규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비판을 받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

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대폭 낮춘 것이 그 골자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의 입지 요건 완화, 특화경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규제 완화, 준주거·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오피스텔의 용적

률 하향 등이 담겼다. 마이스(MICE) 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국제회의 시설과 전시장은 30m 도로가 확보되면 일반주거·자연녹지 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수 불량에 따른 토지 침수, 토사 쓸림에 의한 사고, 부적합한 성토제 사용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절·성토라도 높이가 1m를 초과하면 적정성을 검토받아 허가하도록 했다.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간에서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례시설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용적률 400%를 적용했으나, 과도한 주거단지화, 경관 문제, 기반 시설 부족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용적률인 25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시설은 용적률 400%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 ‘주거단지화’돼 가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정안에는 광주다운 도시 만들기의 하나로 도시관리계획 분야, 개발행위 허가 분야, 건축행위 분야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겼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대표 농식품 공동브랜드 ‘남도미향’ 사용 업체 공모

전남도는 오는 2일까지 전남 농식품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 업체를 모집한다.

‘남도미향’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전남도내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개발한 가공식품 중심의 전남 대표 공동브랜드다.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이며, 품목은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 가공식품과 1차 농산물 등이다.

선정은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엄선하기 위해, 시군에서 접수받아 서류·현장확인 조사 등을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인증한다.

인증은 올 7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유지된다. ‘남도미향’은 그동안 국내·외 대규모 판촉행사 및 홈쇼핑·온라인 입점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 8개 업체를 시작으로 해외 수출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2539억원, 수출로는 1억 6320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는 등 우수성이 입증돼, 전남을 대표한 공동브랜드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남도미향이 전남을 대표한 브랜드에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지역 128개 업체, 286개 품목의 제품이 ‘남도미향’ 인증을 받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클로버봉사단 ‘마을만들기 워크숍’ 지난 30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조각공원 입구에서 어린이들과 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로버봉사단이 주최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워크숍’이 열렸다.

“대기·수질 등 통합환경관리제 권한 지방 이양을”

전남시장군수협, 청와대 등에 건의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관리하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중기·폐기물 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1~2종)을 대상으로 통합 허가를 받도록 받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의 사무였던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업무를 허가는 환경부 장관이, 사후 관리 권한은 환경청장이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환경오염 행위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 권한을 갖고 관리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 및 사후 관리 권한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도 역행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식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통합 인허가 관련법 개정, 조속한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광주-중 자매도시 나눔·연대로 코로나 19 위기 넘는다

원저우·광저우서 마스크·방호복 등 답지 광주시, 8개 자매도시 마스크 5만장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 광주시와 중국 자매우호 도시들 간 나눔과 연대가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호 도시인 중국 원저우에서 지난 26일 마스크 5800장을 보내왔다.

지난 3월에는 광저우에서 마스크 30만장·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200개, 다론펬에서 의료용 포함 마스크 1만5000장·방호복 1500벌·장갑 1만장을 보내왔다.

우한, 지난, 위안, 창즈, 연쥘, 취안저우 등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장갑 등 구호 물품이 답지했다.

광주시와 자매우호를 맺은 중국 도시에서 온 방역물품만 모두 합쳐 마스크 38만장, 체온계 200개,

방호복 1800벌, 보호경 500개에 달한다.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도 지난달 의료용 마스크 1만장, 중국 유학생이 모금한 470만원을 광주시에 기부했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퍼져 중국이 어려움을 겪었던 1월에는 광주시가 8개 자매·우호 도시에 마스크 5만장을 보냈다.

중국에서 온 방역 물품은 사회 취약 계층, 의료계, 방역업무 종사자, 시민단체 현장 봉사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콜센터 등에 단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자매우호 도시에 보낸 서한에서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중국이 코로나 19로 고통받을 때 광주시가 마스크를 지원했는데, 이후 중국 도시들이 지속해서 광주를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150만 광주시민의 마음을 담아 중국 정부와 시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산자부 공모 최종 선정

전남도 2022년까지 40억 들여 영화관·공연장·PC카페 등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불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근로환경 개선을 비롯 청년·기술인력 등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산단내 부족한 문화·주거·복지·편의 기능을 한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대불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국비 28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영화관, 공연장 등 다목적 문화공간과 독

서, 창작, PC카페, 휴게실 등 편의시설, 공동 세탁실, 안전교육 체험관 등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대불국가산단은 서남권 지역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하고 있지만 최근 조선산업 불황으로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서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불국가산단을 고용·산업 위기지역과 청년 진화형 산단으로 지정하고, 중소형선박 공동 건조기반 구축 및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립목포대학교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제8대 총장 박민서

국립목포대학교는 전국의 수험생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라_수험생 #힘내라_대한민국 #코로나19_함께이겨내요! #국립목포대학교

학부 입학생 희망학과 100%자율선택권 보장 학부 입학생의 경우 1학년은 가전공제도로 운영되며 2학년 진입 시 희망학과 100% 보장합니다.

저렴한 등록금 연간 평균 390만원	풍부한 장학혜택 연간 평균 302만원	전노선 무류 통학버스 운영 2019년 부터	편안한 학생생활관 신입생 50% 우선 배정
----------------------------------	-----------------------------------	-----------------------------------	--------------------------------------

원스톱 학생 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2021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2020. 9. 23.(수) ~ 2020. 9. 28.(월) [6일간] 입학상담 (061)450-6000, 6001

※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홈페이지(<http://ipsi.mokpo.ac.kr>)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MOKPO NATIONAL UNIVERSITY